

다카사고 역사 투어 1

경치가 아름다운 다카사고 지역의 해안은 헤이안 시대(794~1185) 이전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기 있는 장소였습니다.

1600년에 다이묘 이케다 테루마사(1565~1613)는 하리마국 히메지번(현재의 효고현 남서부)의 영지를 하사받았습니다. 히메지번은 당시 중요 품목이자 통화 가치가 있던 쌀을 매년 52만 석(7.8톤)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번주인 테루마사는 히메지 성과 다른 곳들의 건설을 명령해 히메지 지역을 발전시켰습니다. 다카사고 지역에서는 항구의 개발과 가코가와 강을 마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호리카와 운하의 건설 등으로 다카사고 지역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 다카사고 지역은 히메지번에서 가장 중요한 마을 중 하나였습니다. 입지와 더불어 활발한 어업, 쌀 생산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코가와 강을 통해 운반되는 물자의 유통 거점으로 번창한 것입니다.

햏켄구라 창고

1605년 다카사고에 2채의 창고가 지어졌으며, 전체 길이가 약 100간(間, 길이의 옛 단위로 지금의 182m 정도)이었기 때문에 ‘햏켄구라 창고(百間蔵)’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가코가와 강을 내려오는 물자는 모두 다카사고 지역으로 운반되었으며, 창고는 히메지번의 재산과 하리마 지방 북부, 동부에서 징수한 연공미를 보관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당시부터 500만 킬로그램에 가까운 쌀을 저장할 수 있었지만, 에도 시대 말기에는 용량이 약 600만 킬로그램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새긴 비석이 현재 창고 터에 세워져 있습니다.

가와구치 번소 터

1605년경, 테루마사는 다카사고 항구 입구에 가와구치 번소를 짓도록 명했습니다. 이 번소는 히메지번의 직할기관으로 다카사고 항구에 입항하는 화물선과 해상 교통의 감시를 위해 관리가 배치되었습니다. 관리 2명과 상근 경비원 5명이 주야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이케다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기와가 표식입니다.

다카사고야

이케다 테루마사는 수공예품의 생산을 장려했습니다. 테루마사의 비호를 받아 지역

장인이었던 오자키 쇼베이는 비단 기모노를 장식하기 위한 이중염색기법을 고안했습니다. 이 기법은 다카사고 신사의 '상생의 소나무'와 두 그루의 소나무의 정령으로, 부부 원만과 장수를 상징하는 노부부 전설의 '조와 우바'를 문양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에도 시대에 이 염색 기법은 '다카사고 염직'이라 불리며 귀하게 여겨졌고 완성된 염직물은 쇼군에게 진상되었습니다.

메이지 시대(1868~1912)에는 비단보다 무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이쇼 시대(1912~1926) 무렵에는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염색 방법이 도입되어 다카사고 염직은 쇠퇴했습니다. 그 후 쇼와 시대(1926~1989)에 접어들면서 다카사고 염직은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카사고 염직을 부활시키기 위한 워크숍 등이 시작되며 다시 다카사고 염직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가지야마치의 오자키 가문 주택(다카사고야) 앞에는 다카사고 염직의 발상지임을 나타내는 간판이 서 있습니다.

엔메이지 절의 오리베 등롱

오리베 등롱은 다이묘이자 다인(茶人)이기도 했던 후루타 오리베(1544~1615)가 고안한 것입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윗부분은 십자 모양이며 아랫부분의 다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오리베 등롱은 다실의 정원에 놓여있었습니다.

등롱은 봉납용, 조명용, 관상용 등 용도가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십자가를 모티브로 하고 있어 기독교가 엄격히 금지되었던 당시에는 에도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예배드리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 키리시탄(기독교인의) 등롱이라고도 불립니다.

가와지조

가와지조(川地藏) 좌상은 항해 안전의 신인 다쿠히 다이곤젠을 상징합니다. 시마네현의 오키 제도에 전해지는 것으로 선주의 해상 안전을 기원하며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 재산으로 다카사고시 후루사토 문화재로 등재되었으며, 2020년에는 현재 위치로 옮겨졌고 지장보살을 모시기 위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현재도 현지 주민들이 공양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